

중도입국 청소년의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포토보이스 기법 활용

조미형* · 이성욱** · 문예술*** · 김수현****

I 알기 쉬운 개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참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하여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4회기 진행했다. 이들이 발표한 사진과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으며, 선생님들의 교육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입국 당시에 비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준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시간을 더 늘리고 이들의 학습능력 및 한국어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 교신저자,
chomihyoung127@gmail.com
-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제2저자
-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제3저자
-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제4저자

투 고 일 / 2024. 6. 10.
심 사 일 / 2024. 9. 11.
심사완료일 / 2024. 9. 27.

I 초록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서 특히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이들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3년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포토보이스를 총 4회기 진행하였다. 회기별 주제는 한국 생활, 레인보우스쿨에 대한 기대와 참여 경험, 레인보우스쿨 참여 전과 후 달라진 점, 진로와 꿈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인가정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만 14세부터 18세, 입국한 지 1~2년 이내이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포토보이스에서 수집한 사진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목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심리적 적응', '진로 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로 구분하여 목표별로 달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목표별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셋째, 진로교육을 통해 고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진로교육은 진로발달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넷째,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레인보우스쿨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시간을 늘리고, 이들의 학습 능력 및 한국어 능력, 연령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도입국 청소년,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참여 경험, 포토보이스

I. 서 론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 내 중도입국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이후 이전 결혼의 청소년기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에서 자라다가 입국한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이다(이승미, 이해웅, 이화용, 2017). 최근 들어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가족 자격 체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김현숙, 2021),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¹⁾으로 통칭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괄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통계 현황은 부재한 실정이다. 교육부 다문화 학생 현황(2023)에 의하면, 제도권 학교 내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는 2012년 6,914명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1,25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10,896명으로 보고된다.²⁾ 또한 2021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22)에 의하면, 만 7세부터 18세 학령기 아동 인구는 174,974명이다(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의 배경에 상관없이 청소년 당사자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국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제한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및 30조).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진로교육,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협력·협업 사업으로 총 21개소³⁾에서 진행하고 있다⁴⁾(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b). 레인보우스쿨은 매년 기관별로 제출하는 사업활동보고서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공급자 관점에서 작성된 간단하고 제한적인 설문지를 사용한 만족도 조사가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1)에 게시한 개념에 의하면,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자녀, 탈북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니거나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경기 8개소, 인천/충남/경남 2개소, 서울/충북/세종/전북/경북/부산/울산 1개소, 그리고 강원, 전남, 제주, 대전, 대구에는 없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b).

4) 2023년까지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기관 위탁으로 운영되었다.

전부이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b). 최근 발표된 레인보우스쿨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연구(양계민, 이영신, 2024)에서도 위탁운영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⁵⁾을 고려하여 이들이 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본인의 욕구와 만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포토보이스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토보이스는 사회적 약자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사진으로 시각화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Latz, 2017). 이러한 점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사진과 내러티브를 통해 성과지표의 산술적 변화량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과 달리, 포토보이스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참여자로서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 연구자가 놓칠 수 있는 - 그들이 말하는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평가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연구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다회기에 걸쳐 진행되면서 참여자가 본인의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포토보이스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풍부해질 수 있다. 포토보이스 활동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차원을 넘어 청소년 참여자가 여러 회기에 걸쳐 다른 참여자 및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포토보이스는 한국으로 이주한 후 문화적 차이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국외에서는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Vaughn, Rojas-Guyler & Howell, 2008; Lighfoot et al., 2019). 국내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Yi, Kim & Ra, 2014), 이주배경 청소년(박은혜, 심혜선, 마담마, 2018), 결혼여성이민자(박미영, 김민아, 2019)가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김시아, 이성재, 정익중, 2019), 자립준비청년(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2023), 장애대학생(황신영, 성지민, 여소담, 김유정, 조승희, 2023), 청소년 성수자(김찬미, 이지하, 곽원준, 2020), 초·중등 연령 아동(강선경, 최윤, 2021; 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이 있었다.

5)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관 실무자나 교사(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조남현, 김보영, 2022; 양계민, 이영신, 2024), 부모(남부현, 김경준, 2018)를 대상으로 하거나 국제결혼가정(박에스터, 유순화, 정애리, 2017; 김효정, 조규필, 2018)이나 고려인/조선족(김진원, 송민경, 이슬아, 유명, 2017; 김소형, 홍영균, 2018)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하여 실무자나 교사, 부모 등 다양하게 설정한 연구도 있다(권보근, 장인실, 2017; 민기채 외, 2021).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모국어로 통번역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2023년도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때 레인보우스쿨의 목표 -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정서적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사회심리 적응 향상, 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 역량 강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한국 사회 이해 증진 - 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은 국내 거주기간이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견을 수집한다. 연구 결과는 이후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는 상이하다. 배상률과 고은혜(2016)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김청송, 신동윤과 명재신(2017)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과 중도입국까지 포함하였다. 이승미, 이해응과 이화용(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까지 포함하여⁶⁾ “장기간 또는 영속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청소년”(p.10)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상이한 범위 설정⁷⁾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과 점점 다양해지는 이주 유형으로 인해, 최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명명하면서 부모나 본인이 이주 경험이 있는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범위 설정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제결혼가정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어서 중도입국 청소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닐 것이다.

6)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동일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상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이승미 외, 2017).

7) 여성가족부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외국 성장 자녀를 의미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인 자이다. 법무부는 한국으로 이주한 만 18세 이하인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본다(김현숙, 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김영란, 전경옥, 김현숙, 오혜진, 2020; 김현숙, 2021). 한국어 교육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배움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떨어져 한국어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경향이 있다(조남현, 김보영, 2022), 개인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홍종명, 2016; 전경숙, 2017).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주 과정과 한국 문화 수용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김효정, 조규필, 2018),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들어하며(양미진, 고흥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자아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남부현, 김경준, 2018). 그럼에도 어려운 일을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형성되면 이들의 어려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조혜영, 2012).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능력과 사회적 지지 체계는 부족하다(오성배, 서덕희, 2012; 유진이, 소학섭, 2019). 한국 이주 후 본국에서의 학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서툰 한국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며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줄어든다(유진이, 2013; 김민경, 2015; 유진이, 소학섭, 2019). 그 외에도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진로 계획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전경숙, 2017).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주로 F-1 비자(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등)로 입국하며(이미정, 2018), 이는 체류만 허용되고 만 18세가 되어 귀화를 신청하지 못하면 출생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2.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⁸⁾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레인보우스쿨은 학기별 16주씩, 총 2학기 32주로 운영된다.⁹⁾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연간 운영 시수는 각각 800시간과 400시간이다. 교육내용은 공통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은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필수교육¹⁰⁾으로 구성된다. 선택교육은 기관별

8) 출처: 「2023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매뉴얼」

9) 2023년의 경우, 1학기는 3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주 진행하고, 1개월 방학을 가진 후, 2학기는 7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16주 운영되었다.

로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생활 적응, 검정고시나 TOPIK 등과 같은 시험 대비, 사회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영역별 운영 시수 구성을 살펴보면, 전일제 기준으로 한국어교육 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택교육 36.25%, 진로교육 12.5% 순이다. 주당 교육 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일제는 주 25시간으로 매일 5시간씩 5일 참여하게 되지만, 시간제는 주 12.5시간으로 4~6시간씩 2~3일 정도 참여하는 시간이다. 양계민과 이영신(2024)에 의하면, 2023년 전일제로 운영된 기관은 25개소 중 4개소에 그쳤다.

표 1
레인보우스쿨 교육별 기준시수 (단위: 시간)

구분	공동교육			선택교육	연간 운영시수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필수교육	기관특성화교육	
전일제	400 (300~500)	100 (75~125)	10	290 (215~365)	800
시간제	200 (150~250)	60 (45~75)	10	130 (95~165)	400

출처: 「2023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매뉴얼」, p.8
주: 괄호 안은 영역별로 시수를 25% 내외로 조정한 기준임.

레인보우스쿨의 성과평가는 2014년에 개발된 황정임, 김이선, 정가원과 송리라(2014)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및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한국생활 유능감, 한국어 교육,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관계성, 진로탐색도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산술적인 변화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2)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효과성

앞서 기술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레인보우스쿨은 이주 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이 있다.¹¹⁾ 2022년 기준으로 위탁기관 30개소¹²⁾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1,673명이며, 이들 중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가 7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6.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9~12세(37.4%)가 가장 많고, 13~15세(27.7%), 16~18세(23.1%), 19세 이상(11.8%) 순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이영신, 2024).

10) 소방 및 재난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 성교육, 흡연 예방 교육, 위생교육 등과 같은 건강교육/ 미디어 중독 예방, 폭력 예방과 같은 유해환경 교육 등이 포함된다.
11) 2024년부터는 기관 위탁 운영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협력·협업사업으로 총 21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12) 광역 시도별로 경기 9개소, 서울 5개소, 인천 3개소, 경남, 충남, 충북 2개소, 광주, 부산, 세종, 강원, 경북, 제주, 전북 1개소이며, 대구에는 없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b).

유진이(2013)는 레인보우스쿨 운영 초기에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 진학이나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한국 사회에서 진로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김소형과 홍영균(2018) 연구에서는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레인보우스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수업시간이 늘어나길 원하며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관 실무자 면접조사에서도 한국어 교육 기간 1년은 학습에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2년 혹은 3년까지도 참여한다고 하였다(양계민, 이영신, 2024). 초기 적응 기관인 다문화 예비학교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만나서 좋고 선생님과 소통에 만족하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¹³⁾ 본국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교육 과정이나 학교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보근, 장인실, 2017). 반면, 민기채 외(2021)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티 참여자의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한국어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맞춤형인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정상우와 이원선(2022) 연구에서도 한국어교육 개선방안으로 멘토·튜터 제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질적 연구들과 달리, 양적 연구를 실시한 김혜련, 오준협과 금재덕(2022)은 151명의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만족도, 추천 의사정도, 효용도(한국 생활 적응에의 도움 정도)로 구분하였고,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교실 등 일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국 후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이라는 목표하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 한국어 능력이 높은 참여자는 지루할 수 있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과 동일한 결과인 것이다.

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 당시 한국어 수준은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는 수준'이 30%, '거의 못 알아듣는 수준'이 18.4%, '조금 알아듣는 수준'이 24.7%,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는 정도'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이의정, 2012).

Ⅲ. 연구방법

1. 포토보이스(photovoice)

포토보이스는 사진과 내러티브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표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참여적 행동 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방법의 한 형태이다(Wang, 1999).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집단 토론을 통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다(Latz, 2017). 특히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대상에게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 등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자신의 이야기로써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참여자에게 효과적이다(Wang & Burris, 1997). Wang과 Burris(1997)에 의하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환경이나 생각, 경험을 사진으로 표현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포토보이스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깊은 울림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가 찍은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참여자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와 토론하면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 속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연구참여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Wang & Redwood-Jones, 2001). 또한 김아미(2017)는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관점을 드러내더라도 해석할 때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의 포토보이스 절차를 따랐다.

2.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3년 레인보우스쿨 참여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중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이고, 집단토의를 위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¹⁴⁾으로 모집하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기관 3개소에 참여 협조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이 중 1개소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기관의 레인보

14) 한국어 성취도 평가 70점 이하인 중도입국청소년은 제외하였다.

우스쿨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모집 안내문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하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였다. 연구참여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중도입국 청소년의 모국어(한국어)를 연구진에게 전달하면, 연구진은 참여자의 모국어로 <연구설명문>과 <서면동의서>를 번역하였다. 연구책임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에 대해 안내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이때 참여자별 출신국가에 따라 모국어로 번역한 <법정대리인-연구설명문>과 <법정대리인-서면동의서>를 제공하였고, 중도입국 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용-서면동의서>는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보호자가 참여에 동의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한해, 연구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의 기본 정보¹⁵⁾는 다음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 시점(24년 1월)에 2명은 만 14세 2명, 17세 2명, 18세 1명이며,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이 중 지성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이고 나머지 4명은 아버지가 한국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입국한 외국인가정 자녀이었다. 이들은 입국한 지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입국 이후부터 레인보우스쿨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조사 시점까지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이름(가명)	성별	출생연월	입국 전 학교 재학 기간	한국 생활 기간	동거 가족
민지	여	2005.02	11년	14개월	부모, 동생
현준	남	2006.05	8년	14개월	부모, 누나, 동생
지우	여	2009.04	7년	14개월	부모, 언니, 오빠, 동생
지성	남	2006.02	10년	18개월	부모, 누나
서윤	여	2009.03	7년	17개월	부모, 동생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매주 1회 2시간, 총 4회기에 걸쳐 포토보이스를 진행하였다.¹⁶⁾ 연구참여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독립된 장소

15) 이들의 출신 국가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하였다. 흔치 않은 출신 국가를 표기할 경우, 개인을 추정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표시하지 않았다.

16) 일부 연구참여자(서윤)는 건강상의 이유로 1~2회 불참하였다.

를 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매주 최소 5장 이상의 사진 찍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사진 검색이나 보관하고 있는 사진 사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1회기 시작 전에 사진 촬영 관련 초상권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기별 주제는 ‘한국 오기 전에 내가 꿈꿨던 한국 생활과 변화’, ‘레인보우스쿨에 대한 기대, 참여 경험,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레인보우스쿨 참여 전의 나 & 참여 후의 나’, ‘나의 진로와 꿈, 5년/10년 후의 나의 모습’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성취도 평가에서 70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서툰 한국어 실력을 보완하고자 매 회기 진행자가 하는 말을 최대한 PPT로 작성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¹⁷⁾ 둘째, 미리 다음 회기 주제를 설명하고 사진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어로 작성해 오도록 안내하였다. 즉석에서 바로 한국어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당일 발표할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오도록 워크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그리고 다음 회기 주제를 설명한 안내문도 제공하였다. 셋째, 4회기 전체에 연구진 4명이 모두 참여하여서 연구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였다. 연구진은 주 진행, 진행보조, 사진촬영 관련 교육, 사진 취합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진을 활용한 표현을 돕기 위해 매회기마다 연구진이 본인의 사진을 예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이전 회기 사진을 복습하는 시간을 통해, 못다 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회기마다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언어적 표현(사진 리뷰, 토론 내용 등)은 녹음하고, 프로그램 종료 직후 비언어적 표현(표정, 몸짓, 행동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연구참여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관찰한 비언어적 표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회기마다 종료된 이전 회기의 사진과 연구참여자가 발표한 내용을 PPT로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사용할 복습 자료를 준비하였다.¹⁸⁾

본 연구 목적인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레인보우스쿨의 진로 교육 및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를 범주로 설정하였다. 범주(목표)별 해당 내용(달성 정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내용의 도출과 도출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7) 일부 연구참여자는 번역앱의 도움을 받아 이해를 높였다.

18) 2회기 이후에 연구진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끼리 의논하여 3회기(레인보우스쿨 참여 전의 나 vs 참여 후의 나)에는 사진으로 담지 못한 각자의 생각을 따로 작성해 와서 발표했다. 초기 1~2회기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단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지만, 3~4회기에서 생각이나 고민을 한국어로 발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참여자의 노력이었다.

연구진 간에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목표별 달성 정도를 도출하면서 연구참여자가 찍어온 사진¹⁹⁾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 회기마다 작성한 발표할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서,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레인보우스쿨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한 의중이 최대한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진이 같이 반복적으로 논의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P01-202312-01-016)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이들의 모국어로 연구설명문과 참여동의서, 사진활용동의서를 따로 번역(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등)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서툰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매회기 진행자가 하는 말을 기록한 PPT, 주제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과정에 대한 녹음과 녹취록 활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했으며, 생성된 모든 자료(개인정보, 녹음 파일, 사진 자료)에 대해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총 4회기의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프로그램의 성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레인보우스쿨의 목표는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심리적 적응”, “진로 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4가지로 구분되었다. 목표별로 달성 정도를 총 8개 하위 주제로 도출하였다.

19)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42장,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진은 32장, 총 74장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결합한 사진이 4장이었다. 묶음 사진을 1장으로 보면, 총 26장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진은 3회기와 4회기에 집중되어 있다. ‘레인보우스쿨 참여 전의 나와 레인보우스쿨 참여 후의 나’, ‘나의 진로와 꿈, 5년 혹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찍은 사진보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3회기에는 참여자들이 본인의 변화에 대해 작문을 해 와서 발표하였다.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4회기에는 미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대학생, 비즈니스맨 등)으로 검색해서 제출했다.

표 3

포토보이스 분석 결과: 목표 달성 정도

영역	하위주제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어렵다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다 친구를 만났고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
진로 교육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

1. 한국어 능력 향상

연구참여자가 말하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하였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면서 본인이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사진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입국 당시에 비하면 한국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여전히 한국어 능력 향상이었다.

지금 읽고 말할 수 있지만 읽기와 쓰기, 읽기와 다른 단어가 많아서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현준, 17세)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초반에는 단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쉬워요. 여기는 스**드 도서관이에요. 한국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이 사진을 골랐어요. (지우, 14세)

작년에 한국 왔을 때 사람들과 소통도 못하고 핸드폰만 사용했는데, 레인보우스쿨에서 5~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들과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지성, 17세)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읽기나 쓰기에 비해 말하기와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레인보우스쿨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면서, 이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말한다고 하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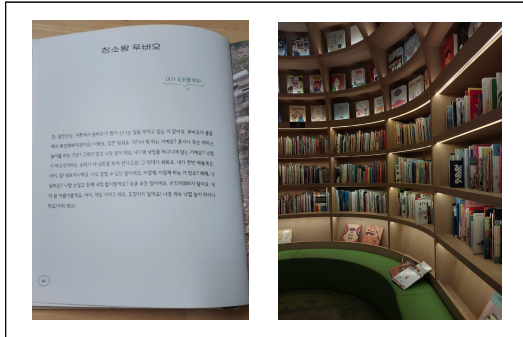


그림 1.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는 등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에 가서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외의 말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 중에도 할 말을 모국어로 번역 앱에 입력하여 한국어로 변환하여 읽었다. 지우만이 번역 앱을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진이 하는 말을 거의 이해했지만 할 말은 한국어로 적고 읽었다.

2.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속에서 처음으로 접하고 습득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²⁰⁾이나 주로 부모와 함께 외식하는 뷔페식당에 함께 갔다.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기관 근처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사진도 찍었다. 기관 사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산책 나가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뷔페식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서 자기 나라 음식과 비교해 보았다. 지우(14세)는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경험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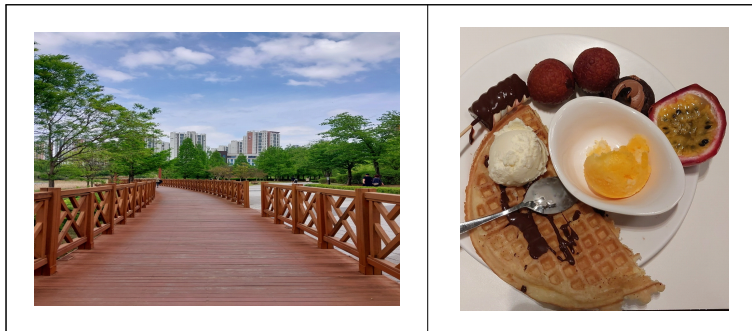


그림 2. 선생님과 공원을 산책했다

그림 3. 뷔페식당에 가 봤다

무엇보다도 레인보우스쿨은 언어와 문화 모든 게 낯선 한국에서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고 같은 상황에 놓인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장소였다. 여기 프로그램 속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한국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

20) 연구 참여 기관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레인보우스쿨 참여자들이 편의점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선생님 인솔하에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을 알아보고 구입하여 먹어보는 경험을 했다.

다. 현준(17세)은 레인보우스쿨의 좋은 경험의 하나로 한국어 수업 종강 파티를 발표했다. 포트락파티 형태로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지우(14세)도 같은 날 사진을 발표했다.



그림 4. 즐거웠던 종강 포트락파티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약간 있어서 때로는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즐겁고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지성, 17세)

레인보우학교에서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지, 18세)

연구참여자 모두는 주로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레인보우스쿨 다니는 것 이외에 사회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들은 왕복 3시간가량 소요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레인보우스쿨을 다녔다. 지우(14세)는 레인보우스쿨 마지막 날 센터에 도착하기 전 그동안 지나다니던 길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어떠했냐는 질문에 “슬펏어요”라고 답했다. 더 이상 이 길을 지나다니지 않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그림 5. 레인보우스쿨 가는 길

연구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을 나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레인보우스쿨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였다. 특히, 레인보우스쿨 내에서 참여자들이 내적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은 교사들의 친절, 도움, 그리고 협조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고 방법을 잘 가르쳐주셨어요. 여기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우, 14세)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고 레인보우스쿨의 선생님들 정말 친절하시고 ...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지성, 17세)

레인보우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셨고 우리는 함께 많은 재미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민지, 18세)

3. 진로 교육

연구참여자 중에서 현준과 서윤은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고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로봇이나 컴퓨터를 직접 다뤄보면서 관심이 생긴 것이다. 현준(17세)은 “레인보우스쿨에서 잡월드를 방문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발표했다. 수학과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현준에게 로봇공학 부스는 진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고국에서는 로봇을 직접 조작해 볼 기회가 없었기에 막연한 호기심이 이 체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로 한 발짝 다가온 것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레인보우스쿨에 바라는 점으로 “수학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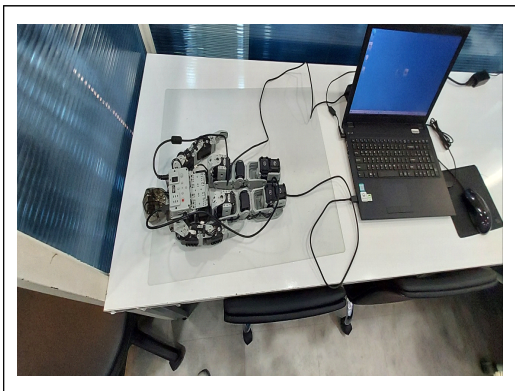


그림 6. 로봇 제작 시스템을 조작해 봤다

로봇 공학 연구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로봇 제작 시스템을 통해 동물 로봇을 조작했어요. 로봇의 다리가 마치 걸어 다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 재밌었어요. (현준, 17세)

저는 수학과 컴퓨터를 좋아하고 한국 학교에서 컴퓨터와 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국]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았고 ... (Q: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현준, 17세)

또한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처음 사용해 본 서윤(14세)은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사진을 발표하면서 컴퓨터공학 분야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진로 교육 중 ‘프로그래머 직업 이해’ 참여 후 소감²¹⁾에서 “한국어로 코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남겼다. 더불어 기관 담당자에 의하면, “서윤은 늘 컴퓨터를 가르쳐달라고

21) 연구 참여 기관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담당자가 기록한 사업보고서) 내용 중 일부이다.

요청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관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마다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였다. 평소 고국에서도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빌게이츠와 폴 앨런은 (제가) 10년 후에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원하는 컴퓨터와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저를 매우 흥미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들고, 코딩하고, 프로그램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서윤, 14세)

지성(17세)의 경우, 향교에 방문해서 체험한 한국 전통문화 중에서 붓글씨를 쓰려고 앉아 있는 사진을 갖고 왔다.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면서 붓글씨로 쓴 한글 사진을 보여주었고, “캘리그래피가 재미있다”라며 “컴퓨터에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진로 교육이 아니더라도 진로 탐색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레인보우스쿨의 다양한 활동은 이들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연구참여자들이 발표한 사진에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먹어본 음식과 다녀온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한 장소가 많았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주한옥마을 여행은 한 장의 사진²²⁾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카페에서 음료도 마시고 거리에서 한국인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고 한복을 입어봤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 여자 모두는 한복 입은 경험을 말했고, 예쁜 옷이라고 했다. 민지는 한국의 전통을 좋아해서 비녀를 꽂은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지역행사에서 향교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투호나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이 즐거웠다고 했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전주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통의상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 음식들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탕후루도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는 카페에 갔어요.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한국 커플과 사진도 찍었어요. 새로운 것도 (문화, 전통, 음식) 경험했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민지, 18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다. 난 한국 전통의상을 항상 입고 싶어요. 내가 처음 [한복을] 입었던 [사진이에요] (서윤, 14세)

22) 연구참여자(민지)가 5장의 사진을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발표하였다.



그림 7. 즐거웠던 전주한옥마을 여행 그림 8.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연구참여자는 가족들과 여러 곳을 다닌 경험이 있었지만, 외국인 부모 자녀인 연구참여자 중에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여행이 경험의 전부인 사람도 있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구로 표현되었다. 한국 사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체험 이외에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사람 사는 모습과 자연이나 문화를 접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했던 것 같다. 비빔밥²³⁾이나 갈비탕 사진을 발표했고, 잡채,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좋아하게 되면서 한층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지우와 지성은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불편이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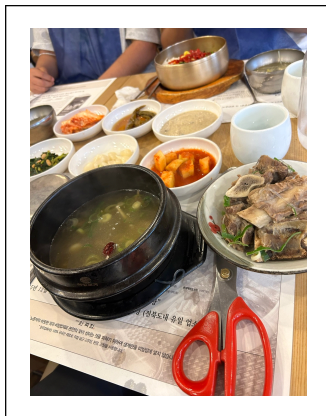


그림 9. 한국 음식 맛있다

한국 문화 음식 사람 다 적응했어요. 한국말에 존댓말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어요. (중략) 한국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서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혼자 보내주시지는 않아요. (지우, 14세)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음 편해졌어요. 한국어가 늘어서 이제는 불편함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성, 17세)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나이 많은 사람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고 받는 예절(현준)과 한국말의 존댓말이 어렵다(지우). 하지만 이들은 1년이 조금 지난 기간이지만 그동안 한국에 적응했다고 느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랑 비교한 다음 서윤의 말에서, 레인보우스쿨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23) 특히 여러 연구참여자가 비빔밥을 먹었던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웠는지 비빔밥 사진이 중복되었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윤은 한국에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 가장 달랐던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경복궁 향원궁 사진 이미지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모든 건물이 그런 줄 알았다”라는 서윤의 말에서 한국에 이주하여 느꼈을 문화 차이는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심리적 적응, 진로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입국 당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비하면 지금은 한국어 책을 읽거나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기존 레인보우스쿨의 성과 평가(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a)에서 참여자의 주관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꼈으며 여전히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조성의 미흡으로 인해 한국어 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조남형, 김보형, 2022)와도 일치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사회심리적 적응’에서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고,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서로 의지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의미가 큼(김효정, 조규필, 2018)을 입증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레인보우스쿨 한국인 교사들과 내적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주변 사람의 지지체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양계민, 조혜영, 2012; Yi, Kim & Ra, 2014)들과 일맥상통하였다. 셋째, 일부 연구참여자는 레인보우스쿨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로봇이나 프로그램 코딩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이주 과정에서 생긴 교육 공백, 서툰 한국어, 진로에 대한 정보 및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유진이, 2013; 김민경, 2015; 전경숙, 2017; 유진이, 소학섭, 2019)에서 레인보우스쿨 진로교육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공교육 진입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고, 붓글씨나 전통놀이 체험을 하면서 낯설기만 하던 한국이 점차 익숙해진 것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도 한국 예절이나 존댓말 표현 등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지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들다고 말한 연구 결과(양미진 외, 2012)와 달리, 레인보우스쿨은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로 평가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사전/사후 변화 정도로 측정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 한국어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는 파악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성취도 평가>에서 70점인 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보이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 능력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한국어 성취도 평가>에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 교육’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는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 교육은 일회성 진로체험 수준에 그쳤고 한국 문화 체험 활동과 구분되지 않았다. 포토보이스에서 진로에 관한 주제를 발표할 때 체험 활동 사진이 많이 등장했다. 2023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매뉴얼(p.8)에서 제시한 “진로 탐색 및 설계 과정을 통한 진로 기초 역량 강화”라는 교육 목표는 교육 운영 시수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진로 교육은 진로 탐색 명목의 체험 활동은 배제하고, 한국 교육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나 전문 상담으로 한정하는 게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한다. 우선, 레인보우스쿨 연간 운영 시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당 12.5시간씩 총 32주 400시간 운영하는 시간제²⁴⁾로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보우스쿨에서 만나는 교사와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체류 자격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도서

24) 대부분 기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간제로 운영하며 25개소 중 전일제는 4개소에 그쳤다(양계민, 이영신, 2024).

관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²⁵⁾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학교와 학원으로 바쁜 또래 한국 청소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레인보우스쿨의 교육 시간은 최소한 전일제²⁶⁾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에 이르렀다.²⁷⁾ 긴 이동 시간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짧아서, 프로그램 마치고 바로 귀가하기엔 아쉬워 프로그램 없이 참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참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한국어보다는 영어 등 좀 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시간을 한국어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능력 및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연령별로 진로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에게는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가 더욱 어렵다. 입국 당시 한국어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지만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이 빠르다. 본 연구에서 포토보이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연구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반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중도입국한 민지(18세)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지우나 서윤에 비해 한국어 소통을 힘들어했다. 민지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로 인해 스스로 무능력하게 느껴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익숙한 영어 사용을 자주 요구하기도 했다.²⁸⁾ 반면 연구진의 말을 듣고 거의 다 이해하고 다른 참여자에게 자기 나라말로 설명해 주기도 한 지우는 진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회기에 ‘몰라요’라는 말을 많이 했다. 지우에게는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여년이 넘게 운영해 온 레인보우스쿨의 상황을 볼 때,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수준 이상의 진로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어 능력 향상과 사회심리적 적응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교육 진입에 있어서 지자체의 관심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 사례²⁹⁾를 보면, 중학교는 레인보우스쿨 1년 교육으로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쉽지 않아 보였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어

25) 외국인가정 자녀 중에는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6) 시간제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전일제로 운영하면 점심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였다(양계민, 이영신, 2024). 본 연구참여자 지성은 기관에서 행사로 제공한 점심을 먹었던 경험에서 친구들과 같이 먹는 시간이 즐겁고 한국 음식이 맛있었다며, 레인보우스쿨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2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이나 오고 가면서 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28) 민지가 영어를 사용할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영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족하지만 한국어로 소통했다.

29) 연구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을 마치고 2024년도에 3명은 공교육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학생인 2명은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 예정이고, 고등학생 1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고등학생 2명은 고등학교 부설 한국어 과정에 다니면서, 한국어 능력이 더 향상된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능력이 부족하여 레인보우스쿨에서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들과 계속 교육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레인보우스쿨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목소리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연구진과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충분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서툰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감안할 때 총 4회기로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레인보우스쿨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진행한다면, 이들의 모국어별로 집단을 구성하고 연구진 중에 모국어 사용 가능자를 포함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Yi, J. H., Kim, K. H., & Ra, M. Y. (2014). Lived Experiences and Visual Expressions from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during their Early Adjustment: Using the Photovoice Methodology. **한국아동복지학**, 45, 103-130.
- 강선경, 최윤 (2021). 코로나 19 이후 변화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313-345.
- 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4), 95-120. doi:10.16881/jss.2021.10.32.4.9
- 교육부 (2023).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세종: 교육부.
- 권보근, 장인실.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51-73. doi:10.22251/jlcci.2017.17.22.51
- 김민경 (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 김소형, 홍영균 (2018).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레인보우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2), 31-66.
- 김시아, 이성재, 정익중 (2019).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1(4), 127-151. doi:10.20970/kasw.2019.71.4.005
- 김아미 (2017). 시각적 연구방법에 대한 인식론적·방법론적 고찰. **한국교육인류학회**, 20(1), 1-23. doi:10.17318/jae.2017.20.1.001
- 김영란, 전경옥, 김현숙, 오혜진 (2020). **서울시 이주배경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김진원, 송민경, 이슬아, 유명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훈련에 관한 참여 실험연구: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8(2), 63-99. doi:10.14816/sky.2017.28.2.63
- 김찬미, 이지하, 박원준 (2020).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아웃팅 경험 분석. **사회과학연구**, 31(4), 231-255. doi:10.16881/jss.2020.10.31.4.231
- 김청송, 신동윤, 명재신 (2017). **경기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달과정 특징에 따른 사회부적응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의회.
- 김현숙 (202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이슈브리프 No. 2021-10).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 김혜련, 오준협, 금재덕 (2022).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6(2), 257-281.
- 김효정, 조규필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7(1), 59-103.
- 남부현, 김경준 (2018).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29(2), 5-34. doi:10.14816/sky.2018.29.2.5
- 민기재, 김혜원, 이가령, 장하영, 정보희, 최성은 (202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대학생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241-278. doi:10.15400/mccs.2021.08.37.241
- 박미영, 김민아 (2019).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려움과 바람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0, 61-100. doi:10.16975/kjfs.2019..64.003
- 박에스터, 유순화, 정애리 (201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유형에 관한 Q방법론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1), 67-97. doi:10.14816/sky.2017.28.1.67
- 박은혜, 심혜선, 마담마 (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법: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3(2), 283-313. doi:10.13049/kfwa.2018.23.2.7
- 배상률, 고은혜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6-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23-일반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이영신 (2024).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연구** (MYF 23-24-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MFY21-19-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미진, 고흥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3. doi:10.35151/kyci.2012.20.2.004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인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doi:10.25152/ser.2012.60.2.517
- 유진이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효과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한 공간 활용**, 219-237.
- 유진이, 소학섭 (2019).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계획 경험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1), 67-105. doi:10.56023/mcyca.2019.4.1.3

- 이미정 (2018).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234-240
- 이승미, 이해응, 이화용 (2017).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2017 정책 연구보고서-23).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a). 2023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매뉴얼 (MYF23-02-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b). 2022 사업활동보고서 (MYF23-01-개). 서울: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a). 2023년 사업활동보고서 (MYF24-01-개). 서울: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재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b). 전국 레인보우스쿨 현황. <https://www.rainbowyouth.or.kr/business/educationSupport/consignmentOrganization.do>에서 2024년 6월 8일 인출.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전경숙, 이의정 (2012).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상우, 이원선 (2022).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1(6), 121-148. doi:10.30974/kaice.2022.11.6.6
- 조남현, 김보영 (2022). 중국어권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사의 경험 연구. 국제어문, 94(0), 637-671. doi:10.31147/IALL.94.24
- 행정안전부 (202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 11. 1.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4년 6월 8일 인출.
- 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가정위탁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67-104. doi:10.24300/jkscw.2023.06.72.2.67
- 황신영, 성지민, 여소담, 김유정, 조승희 (202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어려움과 성장 경험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사회적 포함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3), 155-188. doi:10.20970/kasw.2023.75.3.006
- 황정임, 김이선, 정가원, 송리라 (2014). 레인보우스쿨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도구 개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홍종명 (2016).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년 제26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학습자의 목적별·대상별 한국어교육, 72-76.
- Latz, A. O. (2017).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A Practical Guide from Theory to Exhibition* (1st ed.). New York: Routledge.

- Lightfoot, A. F., Thatcher, K., Simán, F. M., Eng, E., Merino, Y., Thomas, T., et al. (2019). "What I wish my doctor knew about my life": Using photovoice with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to explore barriers to healthcare. *Qualitative Social Work*, 18(1), 60-80. doi:10.1177/1473325017704034
- Vaughn, L. M., Rojas-Guyler, L., & Howell, B. (2008). "Picturing" health: a photovoice pilot of Latina girls' perceptions of health. *Family & Community Health*, 31(4), 305-316. doi:10.1097/01.FCH.0000336093.39066.e9
- Wang, C.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doi:10.1089/jwh.1999.8.185
- Wang, C. C., & Redwood-Jones, Y. A. (2001). Photovoice ethics: Perspectives from Flint photovoice. *Health Education & Behavior*, 28(5), 560-572.
- Wang,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doi:10.1177/109019819702400309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immigrant adolescent's experiences in the Rainbow Schools program: Using photovoice techniques

Cho, Mihyoung* · Lee, Seonguk** · Mun, Yesul*** · Kim, Suhyun****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Rainbow School program in supporting the early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o achieve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four sessions' photovoice in January 2024 with five immigrant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Rainbow School programs in 2023. The topics included their expectations of Rainbow School, their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Rainbow School, and how they change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Rainbow School. Based on the photos and narratives collected through photovoice, the current researchers determined the extent to which each goal was achieved. First, the participants could understand Korean language but were not yet able to communicate well. Second, they acquired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e and daily life and had fun with their friends, which was possible because of the education and help of teachers. Third, career education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career paths through new experiences that were not available in their home country. Fourth, they became familiar with Korean food and got to know more about Korea through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s. Consequently, they reported that they no longer felt uncomfortable living in Korea.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operate a curriculum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learning abilit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age.

Key Words: immigrant adolescents, Rainbow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s, photovoice

* Co-Research Coop, Researcher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Master Student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Master Student